



호랑이들, 불박이 자리없이 전천후 활약... 위기 극복하고 전력 극대화



KIA 타이거즈의 1 위 질주 뒤에는 '토탈 야구'가 있다. 김기태 감독이 처음 고향팀 사령탑을 맡았던 2015시즌 KIA는 최하위 후보로 꼽혔다. 김선빈·안치홍 '키스톤 콤비'의 동반 입대와 함께 센터라인은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여기에 부실한 선수층 탓에 주전 선수들의 부상은 전체 전력의 약화로 이어졌다. 지난 시즌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결국 없는 살림 탓에 1번 타자 나지완, 유격수 김주형 등 파격적인 시도가 이뤄졌다. 올 시즌에도 KIA 야구는 변화무쌍하다. 다양한 시도와 기용이 이뤄지고 있다. 결과는 성공적이다. 김선빈과 안치홍 '키스톤 콤비'와 톱타자 겸 중견수 배나디나를 제외하고는 다양한 경우의 수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 최형우의 영입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다. 가장 바빠진 사람은 김주찬이다. 좌익수 자리에 서있던 김주찬은 우익수로 이동해 새로운 외야를 선보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1루를 주로 지키고 있다. 김주찬의 수비 이동 속에 KIA는 김주찬-최형우-나지완으로 이어지는 클린업 구성했다. 김주찬의 초반 부진이 아쉬기는 하지만 상대에게는 어찌됐든 부담스러운 라인업이다. 최형우와 나지완은 좌익수와 지명타자 자리를 오가며 컨디션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주전 3루수 이범호의 부상도 라인업 구성의 변수가 됐다. 개막 하루 만에 이범호가 햄스트링으로 빠지면서 김주형이 3루에 투입됐다. 1루는 물론 지난해 우익수로도 활약했던 김주형은 환상의 수비로 흐름을 끊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김주형의 활약과 타선의 고른 움직임 덕분에 예전과 달리 주전 이범호의 공백 여파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김주형이 장외 중세 등을 보이는 등 최근 컨디션이 급하락하면서 새로운 고민이 시작됐다. 그리고 김기태 감독은 김지성에 이어 새로운 카드를 사용했다. 역시 김주형과 함께 지난 시즌 '멀티 플레이어'로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해준 서동

욱을 지난 18일 kt와의 원정경기에서 3루수로 선발 출전시켰다. 우려와 달리 서동욱은 환상적인 핸들링을 선보이는 등 주어진 역할을 수행했다. '이적생' 이명기도 '토탈야구'의 한 축이 됐다. SK에서 좌익수로 뛰었던 이명기는 팀 상황상 우익수로 투입됐다. 우익수로의 첫 선발 출전날 호된 신고식을 치렀지만 이내 적응을 끝낸 이명기는 기대했던 타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 넥센전 첫 3안타 경기에 이어 18일에는 시즌 1호 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을 더한 두 번째 3안타 경기를 장식했다. 벤치는 전력의 최대화를 위해 기존의 고정된 자리가 아닌 '전천후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고, 선수들은 주어진 역할을 잘 소화하고 있다. 지난 2년 눈에 띄게 두터워진 선수층 덕에 내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토탈야구'가 힘을 받고 있다. 마운드도 '토탈 야구'로 표현할 수 있지만 야수진과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어쩔 수 없는 보직 파고라 KIA 마운드의 현실이다. 선발진의 '토탈 야구'는 임기영의 발견으로 반가운 결과를 얻었다. 선발 후보였던 김진우의 부상과 홍건희의 부진으로 고민이 빠졌던 KIA는 '표적 선발'로 준비를 했던 임기영에 눈길을 돌렸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다. 첫 선발 등판에서부터 6이닝 1실점의 호투로 '난적' 켈리(SK)에 판정승을 거둔 임기영은 두 번째 두산전에서 승리투수가 됐고, 급기야 18일에는 9회까지 책임졌다. 마지막 9회 2사 1-2루 위기에서 6번째 탈삼진까지 뽑아가면서 세 번째 선발 등판 만에 생애 첫 완봉승을 이뤘다. 불펜의 '토탈 야구'는 KIA의 약점이다. 임창용이 초반 난조를 이어가면서 마무리 직책을 내어놓고 불펜에서 심기일전하고 있다. 결국 선발로 시작해 중간 그리고 뒤로 자리를 옮긴 김윤동과 시범경기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한승혁 그리고 유일한 좌완 심동섭이 고정된 역할과 자리 없이 분투 하는 상황이다. 절대 주전도, 고정 자리도 없는 '토탈 야구'가 KIA의 뜨거운 4월을 이야기 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피홈런 3개... 3패... 팀 3연패

LA 다저스 3-4 패배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원수 투수 류현진(30)이 안방에서도 홈런포에 눈물을 떨구고 시즌 3패째를 떠안았다. 류현진은 19일 콜로라도 로키스와 2017 메이저 리그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6이닝 동안 홈런 세 방을 포함한 7안타를 내주고 4실점했다. 불넷과 몸에 맞는 공을 하나씩 허용했고 삼진은 7개를 빼앗았다. 지난해 7월 8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 이후 286일 만에 홈 마운드에 오른 류현진은 다저스가 1-4로 끌려가던 6회말 2사후 타석 때 몸 세계인과 교체됐다. 다저스는 이후 전세를 뒤집지 못하고 결국 3-4로 저 류현진이 다시 패전의 명예를 썼다. 시즌 3패째다. 평균자책점은 5.87. 시즌 3경기에서 모두 홈런을 얻어맞았고, 피홈런은 6개로 늘었다. 류현진이 한 경기에서 3개의 홈런을 허용한 것은 이날 처음이다. 앞선 두 경기에서 모두 4.2이닝 동안 77개의 공을 던진 류현진이 이날과 투구 수(97개)를 늘린 것은 그나마 위안이다. 최고 구속은 146km가 나왔다. 지난 8일 시즌 첫 등판에서 패배를 안긴 콜로라도를 상대로 메이저리그 개인 통산 60번째 선발 등판한 류현진은 이날도 1회를 쉽게 넘기지 못했다. 선두타자인 좌타자 찰리 블랙먼이 특 갓다 맨 공이 좌익선상을 타고 흐르는 2루타가 됐다. DJ 르메이유는 3루 땅볼로 잡았으나 놀란 아레나도에게 0볼-1스트라이크에서 시속 145km의 빠른 공을 던졌다가 좌월 투런포를 얻어맞았다. 2사 후 마크 레이놀즈와 풀카운트 승부 끝에 불넷을 허용하는 등 1회에만 24개의 공을 던졌다. 2회에는 스티븐 카틀로와 더스틴 가노에게 헛스윙 삼진을 유도하는 등 공 10개로 세 타자를 가볍게 요리했다. 3회 첫타자 블랙먼과의 승부 때는 1루수 방면 내야 안타성 타구를 끝까지 쫓아가 클러브를 토스했고 1루수 애드리안 곤살레스가 맨손으로 잡아 아웃시키는 호수비를 합작했다. 2사 후 아레나도에게 우익선상 2루타를 맞았으나 곤살레스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하지만 4회 1사 후 트레버 스토리에가 1볼-0스트라이크에서 146km의 공을 던졌다가 좌월 솔로포를 얻어맞아 적 점수를 썼다. 류현진은 4회말 다저스가 1-3으로 추격한 뒤 2



LA 다저스의 류현진이 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경기에서 1회초 놀란 아레나도에게 좌월 투런포를 얻어맞은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사 1-2루에서 시즌 첫 안타까지 기록하며 만루로 찬스를 살려냈다. 하지만 스콧 반 슬라이크가 3루 땅볼로 몰리면서 추가 득점에 실패했다. 류현진은 5회 2사 후 아레나도에게 다시 좌월 솔로홈런을 맞았다. 6회에도 마운드에 오른 류현진

호날두, UEFA 대회 100호골... 레알 챔스 4강

레알 마드리드의 스트라이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2)가 유럽축구연맹(UEFA) 주관 대회에서 최초로 100호 골 대기록을 작성했다. 호날두는 19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2016-2017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바이에른 뮌헨(독일)과 경기에서 헤트트릭을 터뜨리며 4-2 승리를 이끌었다. 지난 1차전에서 2골을 몰아넣었던 호날두는 2차전에서도 3골을 추가하며 UEFA 주관 대회 137경기 만에 100호 골 고지를 밟았다. 앞선 13일 뮌헨과 원정경기에서 2-1로 이겼던 레알 마드리드는 8강 1, 2차전 합계 6-3으로 준결승에 올랐다. 이로써 레알 마드리드는 7시즌 연속 UEFA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레알 마드리드는 전반전에 유효슈팅 4개를 기록하며 뮌헨을 압도했다. 뮌헨은 전반전에서 유효슈팅을 단 한 개도 기록하지 못했다. 그러나 레알 마드리드는 후반 6분 뮌헨에 먼저 골을 내줬다. 수비수 카세미루가 왼쪽 측면을 돌파하던 아리언 로번을 막다 반칙을 범해 페널티킥을 허용했다. 키커로 나선 뮌헨의 로베르트 레

반도프스키는 침착하게 골을 넣었다. 레알 마드리드는 후반 31분 호날두의 동점 골로 균형을 맞췄다. 오른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문전에서 헤딩으로 동점 골을 터뜨렸다. 그러나 레알 마드리드는 불과 1분 만에 어처구니없는 수비 실수로 다시 골을 내줬다. 후반 32분 뮌헨의 골잡이 토마스 뮐러가 문전에서 가슴 트래핑으로 공을 흘렸는데, 수비수 라모스가 이 공을 건드려 자책골로 이어졌다. 레알 마드리드는 1-2로 밀렸고, 합산 스코어에서 3-3 동점이 됐다. 레알 마드리드는 후반 39분 상대 아르투로 비달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면서 수적 우세에 놓였지만, 남은 시간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고 연장전에 돌입했다. 승부는 호날두가 마무리했다. 호날두는 연장 전반 14분 라모스의 크로스를 가슴 트래핑으로 받아 왼발 슈팅으로 결승 골을 터뜨렸다. 호날두의 원맨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연장 후반 4분 카르바랄의 패스를 받아 오른발 슈팅으로 헤트트릭을 완성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연장 후반 7분 마르코 아센시오의 쉐기 골까지 터지며 4-2 승리를 거뒀다. /연합뉴스

구자철 무릎 인대 파열 시즌 아웃

한국 축구대표팀의 주전 미드필더 구자철(28·아우쿠스부르크)이 오른쪽 무릎 인대 부상으로 시즌 아웃됐다. 독일 매체 아우쿠스부르크 알게메이네는 19일(한국시간) "구자철이 오른쪽 무릎 인대 파열 부상으로 최소 6주간 뛸 수 없다"라고 보도했다. 회복과 재활 훈련 기간을 합하면 복귀까지 시간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분데스리가 시즌 아웃은 물론, 6월 13일에 열리는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카타르와 원정경기 출전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구자철은 15일 독일 분데스리가 FC 쾰른과 홈경기에서 상대 팀 선수와 공중볼 경합을 하다 작자 과정에서 오른쪽 무릎이 심하게 꺾였다. 구자철은 들것에 실려 그라운드를 나갔다. 그는 부활절 주간으로 인한 현지 사정으로 정확한 정밀 검진을 받지 못하다가 뒤늦게 시즌 아웃 진단을 받았다. /연합뉴스

광주 FC 박동진 6R 베스트 11



광주 FC의 수비수 박동진(사진)이 K리그 클래식 6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박동진은 19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경기평가회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 발표한 베스트 11 수비수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박동진은 지난 16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7 K리그 클래식 6라운드 수원 삼성과의 경기에서 상대 공격진의 발을 묶으며 0-0 무승부에 기여했다. 전남 드래곤즈의 수비수 이슬찬과 최효진도 베스트 11의 영예를 안았다. 전남은 앞선 인천 원정서 3-1 승리를 거두며 5연패 뒤 첫 승을 거뒀다. 한편 6라운드 MVP는 상주 상무와의 경기에서 두 골을 터트린 전북 현대의 에델에게 돌아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